

A white line-art illustration of a magnolia branch with several flowers in various stages of bloom, set against a light blue background. The branch starts from the bottom right and extends towards the top left.

경희대학교 송년회

# Magnolia 2015

2015년 12월 18일(금) 17시 30분  
경희대학교 평화의 전당

MAGNOLIA

초 대

Magnolia 2015

새해 새 희망 함께 나누는 ‘궁지와 포부’의 자리

한 해가 저물고 새해가 밝아옵니다.

경희는 2015년 개교 66주년을 맞아 구성원의 꿈과 희망을 수렴한 <미래대학리포트>를 발간했습니다. 이를 발판으로 내년엔 세계정상을 향한 ‘21세기 대학혁신 대장정’을 시작합니다. 뜻 깊은 한 해를 마감 하면서 Magnolia 2015(목련회의·목련음악회)를 개최합니다.

목련회의는 올 한해 경희의 성취를 돌아보고, 새해 새 희망을 함께 나누는 ‘궁지와 포부’의 자리입니다. 목련음악회는 경희 구성원과 일반 시민을 위한 문화예술의 축전입니다. 경희의 역사이자 비전인 ‘학문 과 평화’를 사랑하는 모든 분들을 모시고 송구영신의 의미를 되새기고자 합니다.

경희대학교 총장 조인원



MAGNOLIA

## 개관

### 함께하는 대학혁신, 아시아를 넘어 세계 정상으로

2015년, 개교 66주년이 저물어갑니다. 올 한 해, 경희 구성원은 <미래대학리포트 2015>를 중심으로 경희의 오늘을 성찰하고 내일을 설계하면서 더 나은 대학, 더 나은 미래를 향한 '금지과 포부'를 다졌습니다. 올해는 경희 구성원의 꿈과 희망을 바탕으로 세계적 명문으로 도약하기 위한 요건을 재확인하는 동시에 대학 혁신의 필요성을 공유한 한 해였습니다.

지난해부터 1년 넘게 추진해온 <미래대학리포트 2015>에는 재학생 1만4천여 명이 참여했습니다. 현재와 미래에 대한 학생들의 의식을 수렴했습니다. 보고서에 나타난 요구사항은 경희의 발전 전략에 깊이 녹아들 것입니다. 나아가 공공성을 중심으로 전 세계 대학을 평가하는 지표(Global Eminence Index)를 개발, 운영할 계획입니다.

지난 여름, 전 국민이 메르스로 인해 불안과 공포에 휩싸였을 때, 경희 의료기관과 구성원은 대학의 사회적 책임을 다해 시민사회와 언론, 정부로부터 큰 박수를 받았습니다. 선도적으로 병원을 폐쇄하고 환자와 의료진이 자가 격리에 들어갔습니다. 지역 주민과 시민사회의 응원과 격려가 이어졌습니다. 메르스 사태를 이겨내는 과정에서 경희의 저력과 역동성을 새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경희는 대학의 핵심가치인 학술과 실천 역량의 극대화를 위해 올 한 해에도 열과 성을 다했습니다. 세계대학 평가에서 경희는 국내 종합대 5위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전공 학과 평가도 꾸준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관·산·학 협력도 확대되고 있어 5대 연계협력 클러스터가 조기 정착하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올해 첫 졸업생을 배출한 후마니타스칼리지는 '교육에서 학습으로'를 기치로 내걸고 제2의 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경희는 대학다운 미래대학을 실현하기 위해 '21세기 대학혁신위원회'를 출범합니다. 학술과 행정·재정 시스템도 획기적으로 개선해나갈 것입니다. 경희의 가까운 미래는 2019년 개교 70주년을 계기로 아시아를 넘어 세계 최정상 명문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우리 안의 미래를 사회와 국가, 지구적 차원으로 확산시켜 나갈 것입니다.

Magnolia 2015는 올 한 해 경희가 이룬 성취를 함께 나누고 새해 새희망을 공유하는 자리입니다. 명문으로 도약하는 경희의 꿈과 희망을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

### 목련회의

17:30~18:30

Review 2015 영상

목련상 시상

‘21세기 대학혁신 대장정’

총장 인사말

### 목련음악회

19:00~20:10

“경계를 넘나드는 클래식과 뮤지컬, 대중음악을 통한 아름다운 공존”

**출연** MC 정인영 가수 케이윌, 김현철, 심현보, 김연지  
소프라노 김희정 합창단 포스트모던음악학과 합창단, 경기어린이합창단

**공연** 소리얼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공연(지휘: 가에타노 솔리만)

연주곡	<b>F. Suppé</b> 프란츠 폰 주페	Leichte Kavallerie Overture 경기병 서곡
	<b>K. Badelt</b> 클라우스 바델트	Pirates of the Caribbean 캐리비안의 해적
	<b>G. Verdi</b> 주세페 베르디	È Strano! Ah! Fors'è lui(Aria from Opera "La Traviata") - Sop. 김희정 이상해! 아 그대였던가(오페라 "라 트라비아타" 중에서)
	<b>G. Verdi</b> 주세페 베르디	La Forza del Destino Overture 운명의 힘 서곡
	<b>G. Bizet</b> 조르주 비제	Carmen Overture 카르멘 서곡

## Review 2015 영상

### 올해 경희의 키워드는 ‘대학혁신’

#### 경희 구성원의 꿈과 희망을 수렴한 한 해

2015년은 경희 구성원의 꿈과 희망을 수렴해 더 나은 대학으로 한 걸음 다가간 한 해였습니다. 경희는 학생들의 이상과 현실을 <미래대학리포트>에 담아냈습니다. 올해도 대학의 핵심가치인 교육과 연구 부문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제도와 구조를 재점검했습니다. 또한 관·산·학 협력을 활성화해 연계협력 클러스터가 조기 출범할 수 있는 기반을 탄탄하게 다졌습니다.

#### 대학을 바꾸자, 세계를 움직이자

경희는 전체 재학생의 절반에 가까운 1만 4천여 명의 현실 인식과 미래에 대한 상상을 <미래대학리포트>에 담아냈습니다. 이 보고서는 경희의 발전전략에 녹아드는 것은 물론, 지구적 대학 혁신 운동의 ‘불씨’가 될 것입니다. 후마니타스칼리지가 제2의 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독립연구’ 교과를 신설해 교육의 패러다임을 바꿔나갈 계획입니다. 2015년은 고등교육의 미래를 더한층 깊이 성찰한 해이기도 했습니다. 지난 5월 23~24일 영국 옥스퍼드대에서 개최된 세계대학총장회 창립 50주년 기념식을 경희가 공동주최했습니다.

#### 학술 경희의 미래, 융복합의 미래

바이오헬스, 미래과학 등 5대 연계협력클러스터를 선도하는 두 분야가 가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함께 홍릉 지역에 바이오·의료 클러스터를 조성하기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미래과학 부문도 경기도, 삼성, 중소기업청 등과 협약을 체결하고 사업을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라이덴 랭킹, QS세계대학 학문분야 평가에서 확인하듯 경희의 연구역량은 꾸준한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 ‘금지과 포부’로 함께 하는 대학혁신

2016년 새해, 경희의 키워드는 ‘대학혁신’입니다. <미래대학리포트> 2단계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21세기 대학혁신위원회’를 발족합니다. 이와 함께 미래학술위원회, 미래행·재정위원회를 출범시켜 대학운영의 모든 부문에서 획기적 변화가 일어나도록 할 것입니다. 미래대학을 위한 꿈의 캠퍼스도 2016년 완공 예정입니다. 2019년, 경희는 개교 70주년을 맞이합니다. 앞으로 3년, 경희는 세계적 명문, 대학다운 미래대학으로 거듭날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존경할 수 있는 대학, 사회적으로 또 지구적으로 존중받는 대학. 그래서 더 나은 문명을 건설하는데 적극 기여하는 대학. 이것이 경희의 가까운 미래입니다.

## 목련상

### 구성원이 함께 써가는 도전과 성취의 서사(敘事)

#### 목련상

목련상은 구성원이 함께 써나가는 도전과 성취의 서사(敘事)입니다. '학문과 평화'로 상징되는 경희의 빛나는 역사와 전통 위에, 학술과 실천의 창조적 결합을 통해 지구공동사회 건설에 기여하는 본교 교수 및 직원을 대상으로 합니다.



#### 연도별 수상자

제정 첫해인 2009년에는 교육부문에 **故이성호** 교수(경영대학), 사회·대학발전 부문에 **유명철** 석좌교수(강동경희대병원)가 수상했습니다. 2010년에는 연구 부문에 **장진** 석학교수(이과대학)와 **손영숙** 교수(생명과학대학), 사회·대학발전 부문에 **김창환** 명예교수(한의과대학), 2011년에는 교육 부문에 **도정일** 명예교수(휴머니티스칼리지), 실천 부문에 **조병춘** 전 사무국장(기획위원회 사무국)과 **최부영** 농구감독(체육부)이 영예를 안았습니다. 2012년에는 연구 부문에 **이동훈** 교수(대학원 우주탐사학과), 2013년에는 실천 부문에 **김중섭** 교수(문과대학), 특별공로상에 **이건수** 동문(동아일렉콤회장), 2014년에는 교육 부문에 **김백봉** 명예교수(무용학부), 연구 부문에 **김동현** 교수(약학대학), 실천 부문에 **故김종규** 교수(지리학과)가 목련상을 수상했습니다.

#### 선정과정

지난 10월 15일부터 후보자를 접수한 결과, 교육 부문 3명, 연구 부문 7명, 실천 부문 4명(팀) 등 총 14명이 접수됐습니다. 부총장단, 경희 Fellow, 교무위원, 기 수상자 등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심사와 외부 검증을 거쳐 교육 부문에 **김윤희** 명예교수(간호학과), 연구 부문에 **류기원** 명예교수(한의학과), 실천 부문에 **강동경희대 병원 메르스 비상경영총괄위원회**로 최종 확정했습니다.

#### 목련상 조형물

목련상 조형물은 우리 대학의 교화인 목련을 오른손에 쥔 모습을 형상화한 것입니다. 개화 직전의 목련과 인간의 손은 경희의 창학이념과 미래비전을 응축한 것으로, 창의적이고 역동적이며 실천적인 경희인을 중심으로 전개돼나갈 인류의 문화세계를 상징합니다.

## 목련상 수상자 - 교육 부문

“함께 주인(COHOST)이 되어야 한다”

김윤희 간호학과 명예교수



김윤희 명예교수는 간호대학의 교육철학과 비전을 수립하고 교육과정을 개발하는 데 중추적 역할을 맡아와, 경희 간호학 역사의 산증인으로 손꼽힙니다. 김교수는 1995년 「정신보건법」이 제정되면서 만성정신 장애자들의 탈원화를 돕는 새로운 정신건강 관리 제도를 도입할 때 간호학 교수로서 유일하게 참여, 개척자적 역할을 수행하기도 했습니다.

2010년에는 정신질환의 조기발견 및 조기치료를 위해 수도권 지역의 초, 중, 고등학교 학생들의 정신증상 검진을 실시했습니다. 또한 아동과 청소년들의 집단 따돌림 및 우울증 예방을 위해 학생들을 대상으로 집단 프로그램을 운영해 2010년 4월 복지부 장관상을 수상했습니다. 이와 같은 활동은 세월호 참사 이후 재난심리회복 프로그램 참여로 이어져 지난 4월 복지부장관상을 재차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 수상소감

“정신장애자와 그들의 가족, 노숙자, 자살을 시도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사회에 봉사한 것이 전부였습니다. 앞으로도 경희구성원과 지역사회에 더 많이 베풀며, 스스로 보람된 삶을 살아가 수 있는 평생 학습 교육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

**약력** 현 안산시 자살예방센터장, 대한정신간호학회 회장(제8대, 제13대), 한국정신보건전문간호사회 초대 회장, 경기도 정신보건심의위원회 위원, 중앙경찰청 상담전문위원, 홍조근정훈장, 한국정신보건전문간호사회장 공로상, 경희대학교 의과대학 간호학과 과장

---



## 목련상 수상자 - 연구 부문

### “한방은 과학이다”

류기원 한의학과 명예교수



류기원 명예교수는 한방의료보험 제도의 개선은 물론, 국내 한방병원 발전의 기틀을 마련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경희의료원 한방병원 개원 멤버인 류교수는 경희대한방병원장, 대한한의학회 이사장, 한의사국가고시 위원장을 역임했습니다.

지난 40년간 난치병 치료와 연구에 몰두해 온 류교수는 관련 논문을 100여 편 이상 발표했습니다. 이와 같은 치료와 연구를 통해 한의학적 오장개념의 분류로 나뉜 비계내과의 명의로 인정받았으며, 비계내과학이 학문적으로 자리 잡는데 큰 기여를 했습니다. 이와 같은 성취로 2009년에는 한의학 발전에 기여한 인물에게 수여하는 류의태·허준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류교수는 한의학과 임상학 연구의 기초를 만들어 후배 및 제자들의 SCI 논문 작성에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 수상소감

1971년 8월 “제3의학”의 가치를 들고 출범한 경희의료원 부속한의학원의 조교수로 임명되면서 경희대와 인연을 맺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직 한 길로 걸는 두지 않고 “경희의 제3의학 실현”을 위하여 노력했다고 생각합니다. 이 상을 수여하게 해주신 경희 구성원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합니다.

**약력** 현 다음한의원 원장, 대한한 의사협회 이사 및 대한한 의학회 이사장, 한방의료보험 실행위원 겸 국민 의료정책 심의위원회 위원,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부속한방병원 병원장, 대한한방병원협회 회장, 한의사국가시험 한의사분과위원회 위원장, 녹조근정훈장(2005년)

MAGNOLIA

## 목련상 수상자 - 실천 부문

### “신뢰와 협동으로 극복하다”

강동경희대학교병원 메르스 비상경영총괄위원회

지난 6월 메르스 사태가 전국적으로 확대됨에 따라 강동 경희대병원은 응급실 폐쇄조치, 선별진료소 운영, 병원 전면 폐쇄, 투석 환자 격리 입원, 의료진 자택 격리 등 즉각 적이고 선제적인 조치를 통해 사태를 조기에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대학 의료기관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병원의 의지와 노력은 지역과 일반 사회에도 전달되어 예상 밖의 격려와 지지를 받았습니다. 강동경희대병원 메르스 비상경영총괄위원회는 메르스 이외에도 신종 감염병의 유행에 대비해, 응급실 내 음압 격리실 추가 설치, 선별진료소를 위한 공사 등 감염병 예방을 위한 응급실의 환경을 개선하고 있으며, 감염 예방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 시행중에 있습니다.

#### 수상소감

“이번 메르스 사태를 겪으며 고난과 역경 속에서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는 사람은 우리 가족들과 이웃들이라는 것을 몸으로 배웠습니다. 교직원 여러분, 정부기관 및 자치단체 그리고 경희가족에게 감사함을 표하며, 앞으로도 병원과 환자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주요 활동** 메르스 비상대책본부 운영, 외래 선별진료실 운영, 인공신장실 투석환자 전원 격리 입원 치료 운영, 병원 전면 폐쇄 조치 결정, 투석 환자 전용 격리병동(8~13층) 운영, 격리병동 진료 의료진 무증상 PCR 검사 실시, 메르스 민간 합동 대응회의 진행

---

## 21세기 대학혁신 대장정

### 교육과 연구, 실천과 행·재정, 그리고 인프라 '새로운 경희' 만들기

2016년 경희가 구성원과 함께 대학을 혁신하는 대장정을 시작합니다. 교육과 연구, 실천, 행정 및 재정, 인프라에 이르기까지 글로벌 스탠다드를 충족시키려 합니다. 이를 위해 21세기 대학혁신위원회를 출범하고 대학 운영의 전 부문에 걸쳐 '새로운 경희'를 구현하고자 합니다.

경희는 2011년 후마니타스칼리지를 설립, 대학 교양교육의 전범을 제시한 이래, 지속적인 변화를 도모해왔습니다. 무엇보다 연구 역량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교육 부문에서도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경희의 미래를 이끌어 나갈 연계협력 클러스터 또한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계적 명문의 요건은 아직 제대로 갖춰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해부터 학생들의 현실과 미래에 대한 인식을 수렴하고, 최근에는 교수진과 총장과의 대화를 거듭한 결과 경희가 극복해야 할 과제들을 재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미래대학리포트 2015>와 지난 12월 교수진과 총장과의 대화를 종합하면, 경희가 넘어서야 할 구조적 문제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학생들은 이상과 현실 사이에서 '절규'하고 있고, 교수님들은 제도과 시설 중 일부를 하루빨리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대학을 둘러싼 대내외 환경도 결코 우호적이지 않습니다. 경쟁 논리에 의한 대학 서열화가 심각한 수준입니다. 정보통신 기술의 급속한 진전으로 교육·연구 방법이 급변하고 있습니다. 학령인구도 크게 줄어들고 있으며, 학생들의 사회진출도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대학에 대한 국가 지원은 충분하지도 않으며, 합리적이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대학이란 무엇인가, 대학은 왜 존재해야 하는가. 이 근본 질문에 대학 스스로 답을 구해야 할 때입니다.

'함께 하는 대학 혁신'은 대학이 결코 포기할 수 없는 핵심가치를 재확인하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교육과 연구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하면서 대학의 사회적·지구적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경희는 구성원과 함께 하는 대학혁신을 통해 마음껏 가르치고 연구하는 교수, 마음껏 배우고 공부하는 학생의 참모습을 정립하고자 합니다. 세계적 파급력을 가진 연구력, 미래 사회의 인재를 길러내는 경희 교육을 창출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행정을 쇠신하고 재정의 안정화를 실현할 것입니다. 캠퍼스 환경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있습니다.

‘함께 하는 대학혁신’은 연계협력 클러스터 추진, 교육과 학습 모델 창출, 학술문화 진작, 행·재정 시스템 쇄신, 캠퍼스 마스터플랜 Space 21 착공 등 중점 과제의 유기적 협력을 통해 시너지 효과를 이뤄낼 것입니다. 대학혁신 대장정의 목표는 분명합니다. 개교 70주년인 2019년, 아시아를 넘어 세계 정상권 대학으로 진입하는 것입니다.

**바이오헬스 클러스터** 5대 연계협력 클러스터를 선도하는 바이오헬스 클러스터는 새로운 개념의 교육·연구·문화예술 도시로 개발되는 흥릉단지 프로젝트와 연계해 ‘흥릉 바이오의료 클러스터 사업’을 추진합니다. 2017년 개원하는 경희 후마니타스 암병원과도 적극 협력할 것입니다. 바이오헬스 클러스터는 천연물신약, 맞춤의학, 재생의학, 스마트에이징 등의 분야를 중점적으로 추진하면서 세계적 수준의 바이오헬스 분야 융복합 학술기관으로 성장합니다.

**미래과학 클러스터** 국가 주요 정책,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수요를 충족시키고, 나아가 세계적 난제 해결에 기여하는 과학기술 역량을 갖추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를 위해 과학과 공학을 중심으로 인문학, 사회과학을 아우르는 융복합 교육·연구 프로그램을 개발합니다. 미래과학 클러스터는 경희 이공계 열의 학술 역량을 세계적 수준으로 끌어올려 인류사회에 이바지하는 융복합 학술기관을 지향합니다.

**후마니타스칼리지 재도약** 2011년 성공적으로 출범한 후마니타스칼리지가 지난 2월 첫 졸업생을 배출했습니다. 후마니타스칼리지는 2016년 봄학기부터 ‘독립연구(independent study)’ 교과를 신설, 교육의 패러다임을 전환합니다. ‘교육에서 학습으로’, 학생들 스스로 연구 주제를 정하고, 교수진의 지도를 받으며 결과물을 창출합니다. 후마니타스칼리지는 전공 학과, 연계협력클러스터, 경희 지구사회봉사단(GSC) 등과 유기적 관계를 맺으면서 ‘경희 교육’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할 것입니다.

**‘꿈의 캠퍼스’ Space 21** 경희의 오랜 숙원 사업인 캠퍼스 마스터플랜이 지난 봄부터 본격 착공에 들어갔습니다. 서울과 국제캠퍼스가 기존 자연환경을 최대한 보존하는 가운데 대학다운 미래대학이 요구하는 최적의 교육·연구 인프라를 조성합니다. 서울캠퍼스에는 대운동장을 중심으로 한의과대, 이과대, 간호대, 공공기숙사가 신축됩니다. 국제캠퍼스는 종합체육관과 공과대건물을 신축하고 외국어대를 리모델링합니다. Space 21 1단계 사업은 2017년 상반기 완공 예정으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 이어 연계협력 클러스터의 조기 정착을 위한 학내외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습니다. 학문 간 경계를 가로지르는 융복합 분야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며, 경희를 대표하는 학과 및 연구 성과에 대한 기대도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와 지자체, 기업 등과의 관·산·학 협력이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인류명명 클러스터도 내년 상반기 출범을 앞두고 있습니다.

연계협력 클러스터를 통해 대학 전체의 균형발전과 학술·실천의 특성화를 이루고, ‘독립연구’를 통해 기초교양과 전공교육이 새로운 방식으로 긴밀하게 만납니다. 여기에 행정의 전문화, 재정의 안정화가 실현되고 ‘꿈의 캠퍼스’가 완성되면, 경희의 가까운 미래가 도래할 것입니다. ‘함께 하는 대학혁신’으로 아시아를 넘어 세계 정상으로! 앞으로 3년, 2009년 개교 70주년, 우리 모두가 함께 맞이할 ‘경이로운 경희’의 미래입니다.



서울캠퍼스에 건설중인 이과대학·한 의과대학·간호과학대학(위) 국제캠퍼스에는 경희체육의 숙원사업 실내체육관이 그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아래).

MAGNOLIA

## 목련음악회

목련음악회는 경희 가족과 지역 주민, 국내외 시민을 위한 축제로, 대중성과 작품성을 고루 갖춘 음악으로 구성됩니다. 대학과 시민이 어우러져 송구영신의 의미를 함께하는 이 음악회는 대학의 문화예술 역량을 지역사회와 나누는 사회공헌 프로그램입니다.

---

<b>F. Suppé</b> 프란츠 폰 주페	<b>Leichte Kavallerie Overture</b> 경기병 서곡
<b>K. Badelt</b> 클라우스 바델트	<b>Pirates of the Caribbean</b> 캐리비안의 해적
<b>G. Verdi</b> 주세페 베르디	<b>È Strano! Ah! Fors'è lui(Aria from Opera "La Traviata")</b> - Sop.김희정 이상해! 아 그대였던가(오페라 "라 트라비아타" 중에서)
<b>G. Verdi</b> 주세페 베르디	<b>La Forza del Destino Overture</b> 운명의 힘 서곡
<b>G. Bizet</b> 조르주 비제	<b>Carmen Overture</b> 카르멘 서곡

---

### 출연진

MC	정인영(영문 04)
소프라노	김희정(성악 81)
가수	케이윌, 김현철(포스트모던음악 겸임교수), 심현보(포스트모던음악 06), 김연지(포스트모던음악 07)
합창단	포스트모던음악학과 합창단, 경기어린이합창단(늘푸른초등학교)

지휘자 가에타노 솔리만 Gaetano Soliman



베로나출생으로 2008-2011 아레나 베로나 예술감독을 역임하고 현재 안탈야 오페라 하우스 음악감독으로 재직 중이다. 바이올린과 비올라를 전공하고, 합창과 오케스트라 지휘까지 한 그는 뮤직 매니지먼트로 석사학위를 받아 학문과 경험을 두루 갖춘 지휘자다. <카르멘>, <아이다>, <나부코>를 시작으로 시대를 넘나드는 다양한 오페라를 지휘한 그는 현재까지 유럽 전역을 돌며 자신만의 섬세한 스타일로 다양한 오페라 작품을 지휘하고 있다.



소리얼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Soliall Philharmonic Orchestra

2008년 12월 젊은 음악인들이 함께 모여 창단한 소리얼 필하모닉 어원은 Soloist의 'Soli<독주자>'와 'All<모두>'이 합쳐져 "모두가 솔리스트"라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말로는 "소리에 혼이 있다"로도 해석된다. 순수 클래식 공연뿐 아니라 <문화소외계층과 다문화 가정을 위한 음악회>, <장애인과 함께하는 음악회>, <찾아가는 음악회> 등 다수의 공연을 가졌으며, 활발한 사회공헌 활동도 준비하고 있다.

T O W A R D S   G L O B A L   E M I N E N C E



---

## Magnolia 2015

---

Magnolia 2015는 경희의 전 구성원이 변화와 창조의 한 해를 돌아보고, 희망의 새해를 맞이하는 송구영신 한마당입니다. 2009년 개교 6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시작돼 올해로 일곱 번째를 맞이하는 이 행사는 안으로 배려와 존중의 대학문화를 형성하고, 밖으로 경희의 수준 높은 문화예술 콘텐츠를 함께 나누고자 마련한 축제입니다.

---